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파견국가	U.S.A	파견도시	Texas
파견대학	Texas A&M university	파견기간	2017.8.22 ~2018.5.14
귀국여부	예..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텍사스 'College Station'에 위치한 텍사스 내 명문대 중 하나로, 학생들의 학구열이 높고, 학교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 동양인 비율이 낮은 학교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언어가 빨리 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6-2학기 수업/ 2017-1학기 수업	<p>ACCT 209 는 회계원리 수업으로, 한국에서 회계를 배우고 왔다면 쉬웠을 것 같다. 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강당에 모여 수업을 듣는데, 필기 속도가 빨라서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다. May's Business school에서 수업에서 모르는 문제들을 시니어 학생들이 도와주는 advice center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용하는 것이 좋다.</p> <p>MGMT 105의 경우 경영학 기초라고 할 수 있겠다. 주 3회 수업인데 주 1회는 에엔엠을 졸업한 기업가가 수업에 초청되어 자신의 성공 비법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수업 분위기도 좋고,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가산점을 주고 시험은 대체적으로 쉬운 편이다. (수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는 가정하에)</p> <p>이외에 추천해 주고 싶은 과목으로는 SOCI 205가 있다. 수업은 어렵다. 사회학 기초라고 만만히 생각하면 크게 한 방 먹는다. 정말 광범위한 범위의 사회학을 명료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고, 사회학의 기초가 되는 각종 이론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과 연관 지어 설명해 주신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하지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서 시험을 쉽다는 건 아니다. 시험은 눈물 나게 어려우니 주의할 것.</p> <p>그리고 KINE199 수업들 강추! 한국에서 못하는 각종 다양한 수업들을</p>

	<p>들을 수 있다.</p> <p>ECON 452는 다루는 내용은 어렵지만 시험은 쉽다. 교수님은 매우 친절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시는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수업은 정~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자주 졸았다. 그래도 한국에서 다 배우고 간 미시 거시 경제학이었고 문제 계산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시험은 쉽게 쳤다.</p> <p>THAR 301은 퍼포먼스 과목이었다. 이 과목도 교수님은 굉장히 대단하시고 똑똑한 분이시나 수업이 정말 지루했다. 조과제가 많고 조끼리 모여서 연극도 만드는데, 교수님만 열정이 가득하셔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 학생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런 광경을 볼 때 마다 매우 가슴이 아팠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친다! 시험 치러 교실 안가도 되는 건 매우 좋지만 시험 문제가 객관식과 서술형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서 교환학생이 성적 받기 좋은 수업은 아니다.</p> <p>마지막으로 혹시나 스페인어 수업을 들어보고 싶었거나 스페인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스페인어 수업 꼭 들어보길 바란다. 스페인어를 이전에 배웠거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거주 경험이 있을 경우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반 배정을 받아야 하고 비기너는 바로 SPAN101수업을 들으면 된다. 나는 시험을 쳐서 SPAN 201부터 시작했는데 201부터는 수업이 일주일에 3번이고 101는 4번이다. Victor 교수님과 Agilar 교수님은 내 인생에 최고의 교수님들이었다. 스페인어 기초부터 정말 꼼꼼하게 배울 수 있었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수업 중에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 Victor 교수님은 보통 중급자 이상 반만 수업하시지만 Agilar 교수님은 초급반도 맡으시니 관심있으면 꼭 들어 보길 바란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말없으니 기대하지 말고 가시길 바란다. 오리엔테이션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교환학생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을 만나거나 알아가고 싶으면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한다! 국제학생들을 위한 동아리는 몇 개 있으니, Open House라고 동아리 소개하는 행사 할 때 잘 찾아보고 가입하면 좋을 듯 하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날씨	<p>현지에 도착하면 8월이라 매우 덥다. 밖은 매우 더우나 건물 안은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추울 수 있으니 건물 내에서 입을 간단한 자켓이나 가디건을 가지고 가면 좋다. 텍사스의 겨울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따뜻한 편이라고 하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는 겨울에 정말 추웠다. 덥다고만 들어서 겨울 옷을 준비해 가지 않아 현지에서 다 샀다. 사실 미국인들은 서로의 패션이나 옷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옷을 가지고 가고 현지에 가서 옷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노스페이스나 게스와 같은 브랜드가 아주 저렴하다. 싼 옷 사서 입고 한국에 돌아올 땐 버리고 오면 된다.</p>
안전	<p>매우 안전하다. 학교에서 밤 늦게 돌아다니게 될 경우 학생증 뒤에 적혀 있는 교내 ROTC 기숙사로 전화하게 되면 ROTC 학생들이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해 준다. 밤 12시까지 스쿨버스가 운영되긴 하지만 밤 늦은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고 가로등이 많지 않아 도로가 많이 어둡다.</p>
숙소	<p>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1학기에는 Legett Hall, 2학기에는 Hart Hall에 살았다.</p> <p>Legett Hall는 여학생들만 사는 기숙사지만 남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놀다 간다. 여학생들만 사는 기숙사라고 가볍게 옷을 입고 있다가 남학생을 만나서 당황한 적이 있다. 베이스먼트에는 주방과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벤트도 많고 대체적으로 친절한 친구들이 많이 산다. 2학기에 살았던 Hart Hall은 교내에서 가장 저렴한 기숙사다. 저렴하지만 기숙사 내에 주방이 있어 요리가 가능하다. 한 층에 여학생 방 2개, 남학생 방 2개가 있다. Legett hall보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O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 직접 요리 ( O ) 기타 ( )</p> <p>레스토랑이 비싸서 직접 요리를 해 먹으려고 노력했으나, 귀찮아서 요리를 많이 하진 못했다. 친해진 친구들이 다들 차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외식을 많이 했다. (내 돈ㅜㅜ) 미국은 한국보다 식료품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 요리를 해서 먹으면 질은 떨어지겠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다. (사실 레스토랑도 그렇게 코퀄리티는 아니다. 그냥 비쌌)</p>

교통	차가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다. 8월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토네이도가 와서 비가 무진장 내렸다. 차도 없고 차를 태워 줄 친구도 없고 스쿨 버스도 안 다녀서 강제로 3일동안 굶었다. 대부분의 미국인 친구들이 친절하고 친해지면 차를 굉장히 잘 태워준다. 고로 돌아다니고 싶으면 차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수업 갈 때 처음엔 걸어 다녔는데 캠퍼스가 넓어서 이동하는데 길게는 40분까지도 걸린다. 고로 스쿨버스를 잘 이용해야 한다. Texas A&M 모바일 앱을 깔면 버스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다. HEB와 같은 식료품 점으로 가는 버스도 있으니 잘 활용하면 유용하다. (그래도 친구 사귀는 것이 최고!)
----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160만원	왕복 티켓이 아니라 편도로 끊었음. (여행을 더 하고 싶다면 편도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
Fees		따로 낸 fee는 없었음.
보험료	1000 달러	학교에서 필수로 드는 보험을 들었다. 총 다해서 한 학기에 1000달러 정도였던 것 같다.
기숙사	4000달러	Legette hall은 2200달러 Hart hall은 1800달러 정도였음.
식비	7000달러	나는 먹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성격이라 한달에 600에서 700불 정도 들었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충분히 아낄 수 있다)
교통비		
책값	700달러	첫 학기엔 멋도 모르고 책을 다 사버려서 500달러 정도 들었다, 두 번째 학기는 한 과목만 사서 110달러 정도 들었다.
여행		나는 매 주마다 텍사스 내에 다른 도시들로 여행을 다녔고 겨울 방학

		동안 씨애틀부터 샌디에고까지 여행을 했고, 멕시코를 두 번 다녀왔다.
합계	23000달러	여행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비용은 이정도 들었다.

## 5. 출국 전 준비사항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발 가기전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영어 공부 좀만 더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다. 다시 말하지만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오는게 가장 큰 준비다! 또, 하나 자신이 소극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면 말 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오는 게 좋다. 옷 같은 건 여기서도 다 살 수 있으니 많이 준비할 필요 없다. 한국 돌아갈 때 정말 짐만 된다. 요리책 보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좀 알아서 오는 것도 돈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요리를 안 해봤다면 미리 연습 좀 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을 갈 때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학교에 어떤 주, 어떤 도시에 더 잘 어울리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스페인어를 더 배우고 싶었고, 명문대학교, 공부 잘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 Texas A&M을 선택했지만, 사실 미국 내에 어느 주를 가든 스페인어를 하는 히스패닉은 많고, 다니다 보니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파티하고 놀 때가 더 즐거웠다. 캘리포니아로 갔다면 나와 더 잘 맞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수업 방식이나, 교수님과 TA의 열정, 학생들의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매우 감명 깊었던 한 해였다. 텍사스 내에 명문대 중 하나인 만큼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 보통은 나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어림에도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 학생들이 많아 한국인 유학생이나 교포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고 (한국인 교환학생도 나를 포함해서 딱 2명이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좀 더 빠리는 것 같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바다에 놀러 갔다,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는 바다였지만 굴하지 않고 재미있게 놀았다.



텍사스에 눈이 왔다. 겨울에도 눈이 잘 안내리는 텍사스에 눈이 와서 모두들 신날 날이었다.



풀 파티 보다 좋은 건 프리 푸드 ~



애들이랑 다 같이 봉사활동도 갔다왔다.



친구 졸업사진 직접 찍어준 날, 뒤에 있는 애가 사실 메인 모델입니다.



친구랑 매직 쇼 보러 갔다가 남자한테 꽃도 받아보고~ 좋았다 ㅎㅎㅎ